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 :
또래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Linking Parenting to Loneliness in Adolesc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김주연(Ju-Yeon Kim)¹⁾

도현심(Hyun-Sim Doh)²⁾

김민정(Min-Jung Kim)³⁾

신나나(Nana Shin)⁴⁾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s' loneliness. A total of 506 1st and 2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261 boys and 245 girl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mpleted measures of parenting, the quality of their peer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ing and the quality of their peer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feelings of loneliness. Specifical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low levels of parental monitoring and high levels of abusive and neglectful parenting were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loneliness.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 quality of their peer relationships to be low reported high levels of loneliness. Further,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s' loneliness; however, the pattern of associations differed for boys and gir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oth parent and peer relationship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 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³⁾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연구교수

⁴⁾ 미국 Auburn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combination in order to better explain loneliness in adolescents.

Key Words : 부모의 양육행동(parenting), 또래관계의 질(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청소년의 외로움(loneliness in adolescents).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보다 폭 넓은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나 외로움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서의 단절감은 끝없는 자기비하와 상실감을 유발한다(Rubenstein & Shaver, 1982). 특히 청소년 문제에 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등의 정서적 문제들을 경험하며 심하게는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Corsano, Majorano, & Champretavy, 2006; Kim, 2002)은 이 시기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청소년기는 부모-자녀관계가 중심이던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또래와 함께 많은 시간을 지내게 되면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가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또래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은 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직면하게 된다(Park & Doh, 1998).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는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청소년은 다른 어떤 성장기 아동들보다 외로움을 느끼기 쉽다(Heinrich & Gullone, 2006; Medora & Woodward, 1986). 예를 들어 Culp, Clyman과 Culp(1995)의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교생의 66%가 지난해에 경험한 문제들의 하나로

외로움을 들었으며, Perlman과 Landolt(1999)는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는 청소년기에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 청소년의 20-50%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이 더 이상 소수집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Brennan, 1982).

국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여, 청소년의 21.8%가 외로움과 고독을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로 기술하였으며, 10명의 청소년 가운데 6.4명은 외로움을 포함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atistics Korea, 2010). 이러한 발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후기나 성인기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며(예 : Shaver & Rubenstein, 1980),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예 : Asher & Wheeler, 1985). 더구나 청소년의 외로움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외로움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들은 외로움의 관련요인으로 개인의 인성특성이나 정서 및 행동 특성 등 주로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접근은 외로움을 단순히 개인적인 맥락에서만 보는 시각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의 결여(Young, 1982)에서 오는 지각이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인성구조의 기능으로서, 개인적 속성 뿐 아니라 대인적·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Goswick & Jones, 1981; Hojat, 1982).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비롯되는 외로움과 관련하여 주로 부모, 형제 또는 또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은 부모나 가족외의 다양한 환경을 접촉하고, 또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여전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Tauschke, Merskey, & Helmes, 1990).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는 감독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Shaver와 Rubenstein (1980)은 부모-자녀관계가 빈약할 때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보다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와 외로움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부모와의 시간을 적게 보내고, 활동을 적게 하며, 부모의 지지가 낮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Paula, 2001).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일 때 자녀의 정서는 더 긍정적이고, 특히 아버지의 관심이 낮을 경우 자녀의 외로움 및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Maria, 2006). 또한, 학대받은 아동이 우울하고 위축되며 정서적 부적응을 겪는다는 연구결과(Kim & Kim, 1997)나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감 부족이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감독 소홀 등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Crick & Dodge, 1994; Parker & Benson, 2004)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외로움간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청소년들보다 대학생활에서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ojat, 1982). 국내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외로움을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감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들(Jung & Kim, 2006; Kim, 2006)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 때 청소년은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자녀관계를 결정짓고 나아가 자녀의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외로움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과 같은 긍정적 양육과 학대 및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므로, 그 특성은 개인의 외로움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청소년기에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외로움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의 외로움에 있어 그들의 또래관계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Jones, Freemon, & Goswick, 1981; Russell, Peplau, & Cutrona, 1980; Uruk & Demir, 2003). 또래집단을 동일시하려는 욕구는 청소년기의 기본이 되는 특성이며, 집단 동일시의 실패로 인한 소외감은 청소년에게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Hecht, Inderbitzen, & Bukowski, 1998). 또한 빈약한 또래관계의 경험은 외로움·불안·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Woodward & Fergusson, 1999),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연구결과들(Asher & Wheeler, 1985; Doh, 1996; Jung, 1988)에서도 일

관적으로 나타난다. 외로움은 또래수용도와 인기도 뿐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의 존재유무와 친구관계에서 지각되는 질적 특성까지도 관계가 있으며(Oh, 2000; Parker & Asher, 1993), 사회적 관계망의 양적인 측면보다 대인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의해 더 잘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또래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친구와의 관계에서 지각되는 친밀함과 교제의 즐거움, 친구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이 적을수록, 아동은 외로움을 덜 느꼈다(Jung & Kim,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만족 혹은 불만족을 포함한 질적 측면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로움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의 또래관계는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자녀관계를 안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또래에 의해 더 수용되었으며(Kerns, Klepac, & Cole, 1996),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일 때 또래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높았다(Dekovic & Meeus, 1997). 또한 부모가 과보호적이거나 돌봄이 부족할 경우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Rigby, Slee, & Cunningham, 1999), 부모의 양육행동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판적인 경우, 자녀는 또래집단에서 부적절하고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배척받는 원인이 되었다(Choi, 1999; Putallaz & Heflin, 1990).

이와 같이,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외로움을 지각하는 데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는 또한 또래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및 외로움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또래관계가 긍정적이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Grotevant & Cooper, 1985). 또한 초기 성인의 애착,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능성 및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이 애착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였다(Ditommaso, Brannen-McNulty, Ross, & Burgess, 2003).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에 근거하건대,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또래관계와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녀의 또래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외로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는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쉽고, 나아가 또래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갖게 되며 외로움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몇몇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각이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인 특성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예: Rohner & Pettengill, 1985). 이는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은 자녀가 지각한 양육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녀의 성격형성에는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Yu, 199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청소년 자신의 지각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일차적 애착 대상인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Kim, 2002; Kim, Jo, & Jung, 2005).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포함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부-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hn & Kim,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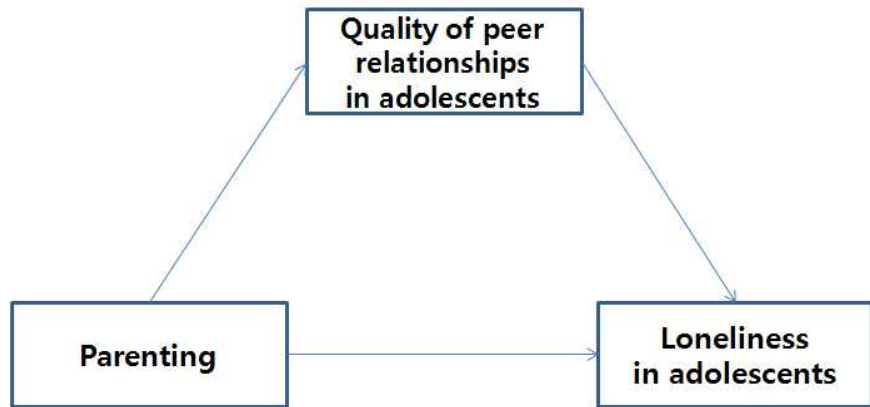
Lim & Na, 2003). 예를 들면, 부-자녀관계는 모-자녀 관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과 더 커다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이 이성 부모와의 관계에 비해 동성 부모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하게 Jung(1998)에서도 동성 부모와의 관계는 이성 부모와의 관계보다 자녀의 정신건강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이와 같이 부-자녀간 상호작용은 모-자녀간 상호작용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포함하여 양쪽 부모의 양육행동을 고려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외로움에 관한 몇몇 연구결과들(Marcoen & Brumagne, 1985; Oh, 2000; Park & Doh, 1998)을 통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외로움의 관련 변인들에서 성차가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자녀의 결합형태와 아동의 외로움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돌봄만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친 것에 반해 여아의 경우, 아버지 및 어머니의 과잉통제 및 제한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남아는 어머니의 돌봄이 적다고 인식할수록 외로움을 더 느끼는 반면, 여아는 아버지

와 어머니가 제한을 많이 가하고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다(Woo & Park, 2001). 또한 아동의 외로움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아에게는 어머니의 온정이, 여아에게는 아버지의 온정이었다(Doh, 199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포함하여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였다.

요약해 보면,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이 외로움에, 그리고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질이 차지하는 매개적 효과를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행동은 남녀 청소년의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은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의 양육행동은 남녀 청소년의



<Figure 1> Linking parenting to loneliness in adolesc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또래관계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또래관계의 질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2곳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506명의 남녀 청소년들(남자 : 261명, 여자 : 245명)이다. 본 연구의 내용상 부모와 동거하는 청소년들만이 선정되었다.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할 이유는 많은 국외 연구들에서 이 시기를 외로움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보고한 점에 근거한다(예 : Medora & Woodward, 1986). 또한 또래에 대한 애정과 의존도가 학령기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는 점에서(Bryant, 1982), 이 시기의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5세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37.9%, 둘째가 41.7%이었다. 가족구조는 85.6%가 핵가족이었으며, 아버지의 연령은 40-44세가 약 43%, 45-49세가 약 42%였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40-44세가 53%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약 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36.8%)이었으며, 어머니는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약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교 졸업(32.6%)이었

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41.5%,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21.5%,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6.2%의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44.1%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2.9%, 생산감독 및 서비스직이 12.5%의 순이었다.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86.1%가 중, 8.6%가 상, 5.6%가 하에 해당하여 86.1%가 중류로 지각하고 있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 및 외로움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었다. 모든 척도는 청소년 자신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Huh(2000)가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가운데 감독, 학대 및 방치 요인을 사용하여, 청소년이 현 시점에서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조사하였다. 원 척도는 감독, 비일관성,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및 애정 등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두어 감독(4문항), 학대(6문항) 및 방치(5문항)의 세 요인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원 척도에서의 양육행동 요인 중 ‘방치’는 의미상 사람에게 대한 것이기보다는 물건을 내버려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버려둔다는 의미의 ‘방임’

으로 수정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부모의 감독의 경우, ‘내가 수업이 끝난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학대는 ‘내가 잘못하면 때부터 드신다.’, ‘작은 잘못에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신다.’,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다.’ 등이고, 방임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시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안 계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의 감독, 학대 및 방임 요인의 Cronbach's α 는 각각 .75, .82 및 .75이었으며, 어머니의 감독, 학대 및 방임 요인의 Cronbach's α 는 각각 .75, .79 및 .72이었다.

2) 또래관계의 질 척도

또래관계의 질은 Kim(2002)의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Kim(2002)은 아동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Furman과 Buhrmester(1992)의 NRI(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가운데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로 보이는 특성만을 추출하여 번안하였고, 또한 Parker와 Asher(1993)의 연구와 Ladd와 Kochenderfer(1996)의 연구를 근거로 또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요인들을 토대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우의, 상호친밀·공감대, 정서적·사회적지지, 갈등의 해결, 인기, 또래 만족도 등의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20문항과 갈등·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고립, 무시, 또래관계 불만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20문항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긍정적 또래관계의 경우,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잘 도와준다.’ 등이고, 부정적 또래관계의 경우, ‘나는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 때, 말다툼을 하거나 싸운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의 20문항을 역코딩한 후, 하나의 요인으로 취급하여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90이었다.

3) 외로움 척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Park(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Park(1998)의 척도는 Russell, Peplau와 Ferguson(1978)의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oneliness Scale을 개정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ssell et al., 1980)을 청소년에 맞게 번안한 것이다. 척도의 총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10문항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 여부를, 나머지 10문항은 불만족 여부를 질문한다. 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등이 포함된다. 본 분석에서는 만족 여부에 관한 문항을 역코딩한 후 하나의 점수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90의 신뢰도를 보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8년 10월에 실시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한 G중학교와 S중학교 1, 2학년 16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학교장의 동의하에 담임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각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였고, 배부된 600부의 질문지 가운데 547부의 설문지(91%의 회수율)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모 중 어느 한 쪽 혹은 양쪽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1부를 제외하고, 총 506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의 질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롯하여, 또래관계의 질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부모의 양육행동, 또래관계의 질 및 청소년의 외로움의 전반적인 수준과 각 변

인들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Table 1). 아버지 양육행동의 경우, 감독($t = -3.00, p < .01$)과 학대($t = 3.38,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아버지의 감독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아버지의 학대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아버지의 방임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 양육행동에서의 유의한 성차는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t = -4.38, p < .01$)과 학대($t = 2.58, p < .05$)에서 발견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의 감독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의 학대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어머니의 방임에서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는 또래관계의 질($t = -6.17, p < .001$)과 외로움($t = 2.56, p < .05$)에서도 나타나,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또래관계의 질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들의 성차가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Table 1> Gender differences in parenting,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N = 506$)

Variables	Boys($n = 261$)	Girls($n = 245$)	t
	$M(SD)$	$M(SD)$	
Paternal parenting			
Monitoring	2.59(.72)	2.78(.70)	-3.00**
Abuse	1.65(.60)	1.48(.52)	3.38**
Neglect	1.79(.59)	1.69(.56)	1.95
Maternal parenting			
Monitoring	2.91(.69)	3.17(.63)	-4.38**
Abuse	1.59(.55)	1.47(.49)	2.58*
Neglect	1.68(.53)	1.60(.54)	1.62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2.89(.32)	3.07(.33)	-6.17***
Loneliness	1.93(.43)	1.83(.46)	2.56*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Parenting as a predictor of adolescents' loneliness (N = 506)

Predictor	Loneliness		
	Total	Boys(n = 261)	Girls(n = 245)
Paternal parenting			
Monitoring	-.11*	-.09	-.10
Abuse	.17***	.23*	.13*
Neglect	.24***	.10	.37***
R^2	.16	.09	.24
$F(df)$	31.87***(3,502)	9.75***(3,257)	25.13***(3,241)
Maternal parenting			
Monitoring	-.16**	-.14*	-.13
Abuse	.09	.10	.10
Neglect	.25***	.17*	.34***
R^2	.16	.10	.21
$F(df)$	30.95***(3,502)	9.18***(3,257)	21.74***(3,241)

* $p < .05$. ** $p < .01$. *** $p < .001$.

발견되어, 이후 분석에서는 성차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감독, 학대 및 방임의 양육행동 요인들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아버지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들은 방임($\beta = .24, p < .001$), 학대($\beta = .17, p < .001$) 및 감독($\beta = -.11, p < .05$) 순으로 전체 청소년의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6%였다. 즉, 청소년은 아버지의 방임이 높고, 학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으며, 아버지의 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꼈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들은 방임(β

$= .25, p < .001$), 감독($\beta = -.16, p < .01$) 순으로 전체 청소년의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6%였다. 즉, 청소년은 어머니가 방임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으며, 어머니의 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꼈다. 반면, 어머니의 학대는 청소년의 외로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 양육 관련 변인에서 학대($\beta = .23, p < .05$)만이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9%였다. 즉, 남자 청소년은 아버지의 학대를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느꼈다. 반면, 아버지의 감독, 방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방임($\beta = .17, p < .05$)과 감독($\beta = -.14, p < .05$) 순으로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0%였다. 즉, 남자 청소년은 어머니가 방임적이라고 지각할 때 외로움을 더 느꼈으며, 어머니의 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로

움을 덜 느꼈다. 반면, 어머니의 학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방임($\beta = .37, p < .001$) 및 학대($\beta = .13, p < .05$) 순으로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4%였다. 즉, 여자 청소년은 아버지의 학대와 방임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다. 반면, 아버지의 감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경우 방임적 양육행동($\beta = .34, p < .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1%였다. 즉, 여자 청소년은 어머니가 방임적이라고 지각할 때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다. 반면 어머니의 감독, 학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래관계의 질은 전체 청소년을 비롯하여($\beta = -.78, p < .001$), 남자 청소년($\beta = -.74, p < .001$)과 여자 청소년($\beta = -.83, p < .001$)의 외로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전체 청소년, 남자 청소년 및 여자 청소년 각각의 경우 61%, 55%, 및 69%이었다(Table 3). 즉,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은 외로

움을 덜 느꼈다.

4.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감독, 학대 및 방임의 하위요인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아버지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들 가운데 방임($\beta = -.20, p < .001$) 및 학대($\beta = -.17, p < .001$) 순으로 전체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2%였다. 즉, 청소년은 아버지의 학대와 방임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또래관계의 질을 낮게 지각했다. 반면 아버지의 감독은 또래관계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경우, 방임($\beta = -.21, p < .001$), 감독($\beta = .14, p < .01$) 및 학대($\beta = -.12, p < .05$) 순으로 전체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4%였다. 즉, 청소년은 어머니의 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방임과 학대를 높게 지각할 때 또래관계의 질을 낮게 지각했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 양육행동의 학대적 양육행동($\beta = -.24, p <$

<Table 3>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s a predictor of adolescents' loneliness (N = 506)

Predictor	Loneliness		
	Total	Boys(n = 261)	Girls(n = 245)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78***	-.74***	-.83***
R^2	.61	.55	.69
F(df)	801.13***(1,504)	318.49***(1,259)	530.90***(1,243)

*** $p < .001$.

<Table 4> Parenting as a predictor of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N = 506)

Predictor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Total	Boys(n = 261)	Girls(n = 245)
Paternal parenting			
Monitoring	.05	.01	.02
Abuse	-.17***	-.24**	-.07
Neglect	-.20***	-.07	-.35***
<i>R</i> ²	.12	.08	.16
<i>F(df)</i>	21.85***(3,502)	7.76***(3,257)	14.71***(3,241)
Maternal parenting			
Monitoring	.14**	.09	.10
Abuse	-.12*	-.13	-.08
Neglect	-.21***	-.16*	-.30***
<i>R</i> ²	.14	.09	.16
<i>F(df)</i>	26.02***(3,502)	8.08(3,257)	15.23***(3,241)

p* < .05. *p* < .01. ****p* < .001.

.01)만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8%였다. 즉, 남자 청소년은 아버지의 학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또래관계의 질을 낮게 지각했다. 반면, 아버지의 감독과 방임은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경우, 방임($\beta = -.16, p < .05$)만이 또래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9%였다. 즉, 남자 청소년은 어머니의 방임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또래관계의 질을 낮게 지각했다. 반면, 어머니의 감독 및 학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방임적 양육행동($\beta = -.35, p < .001$)만이 또래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6%였다. 즉, 여자 청소년은 아버지의 방임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또래관계의 질을 낮게 지각했다. 반면, 아버지의 감독과 학대는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경우, 방임($\beta = -.30, p < .001$)만이

유의적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16%였다. 즉, 여자 청소년은 어머니의 방임을 높게 지각할 때 또래관계의 질을 낮게 지각했으며, 어머니의 감독과 학대는 또래관계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질의 매개적 역할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질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단계의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들, 즉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 그리고 매개변인과 종속변인간 등 세 가지 경우에서의 유의한 관계가 충족된 경우는 전체 청소년 4가지, 남자 청소년 2가지, 여자 청소년 2가지 등 총 8가지였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을 통해 또래관계의 질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매개변인인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2단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의 질을 동시에 투입한 후, 이러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Table 5). 종속변인에 대한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매개분석의 각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의 감독, 학대 및 방임 등 세 가지 하위요인들을 회귀식에 모두 포함시켰다(Dekovic, Janssens, & Van As, 2003).

먼저, 전체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 및 외로움간의 관계에 있어, 아버지의 학대와 방임에서 또래관계의 질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행동변인들과 또래관계의 질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아버지의 학대는 전체 청소년의 외로움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beta = .17, p < .001 \rightarrow n.s.$), 아버지의 방임이 전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었다($\beta = .24, p < .001 \rightarrow \beta = .09, p < .05$). 즉, 또래관계의 질은 아버지의 학대와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아버지의 방임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전체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 및 외로움간의 관계에 있어 어머니의 감독과 방임에서 또래관계의 질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의 질을 함께 투입했을 때 어머니의 감독은 전체 청소년의 외로움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beta = -.16, p < .01 \rightarrow n.s.$), 어머니

의 방임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었다($\beta = .25, p < .001 \rightarrow \beta = .10, p < .01$). 즉, 또래관계의 질은 어머니의 감독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으며, 어머니의 방임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다음으로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자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의 질은 아버지의 학대와 외로움간의 사이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방임과 외로움간의 사이에서 완전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아버지 학대와 또래관계의 질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아버지의 학대는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23, p < .05 \rightarrow n.s.$). 또한 어머니의 방임과 또래관계의 질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어머니의 방임역시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17, p < .05 \rightarrow n.s.$).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학대/어머니의 방임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의 질은 부모의 양육행동중 방임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에만 매개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여자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로움에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방임이 여자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또래관계의 질이 회귀분석에서 함께 고려되었을 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beta = .37, p < .001 \rightarrow \beta = .10, p < .05$). 이러한 경향은 여자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beta = .34, p < .001 \rightarrow \beta = .11, p < .01$). 즉, 또래관계의 질은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과 여자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Table 5> Parenting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s predictors of adolescents' loneliness (N=506)

Predictors	Total			Boys(n = 261)			Grls(n = 245)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Loneliness	Loneliness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Loneliness	Loneliness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Loneliness	Loneliness
Paternal parenting									
Monitoring	.05	-.11*	-.08*	.01	-.09	-.09	.02	-.10	-.09*
Abuse	-.17***	.17***	.04	-.24**	.23*	.05	-.07	.13*	.07
Neglect	-.20***	.24***	.09*	-.07	.10	.05	-.35***	.37***	.10*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73***			-.71***			-.76***
R^2	.12	.16	.64	.08	.09	.57	.16	.24	.72
$F(df)$	21.85*** (3,502)	31.87*** (3,502)	19.33*** (4,501)	7.76*** (3,257)	9.75*** (3,257)	84.69*** (4,256)	14.71*** (3,241)	25.13*** (3,241)	154.70*** (4,240)
Maternal parenting									
Monitoring	.14**	-.16**	-.05	.09	-.14*	-.08	.10	-.13	-.05
Abuse	-.12*	.09	.01	-.13	.10	.01	-.08	.10	.04
Neglect	-.21***	.25***	.10**	-.16*	.17*	.06	-.30***	.34***	.11**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74***			-.71***			-.77***
R^2	.14	.16	.63	.09	.10	.56	.16	.21	.71
$F(df)$	26.02*** (3,502)	30.95*** (3,502)	211.27*** (4,501)	8.08*** (3,257)	9.18*** (3,257)	82.39*** (4,256)	15.23*** (3,241)	21.74*** (3,241)	144.36*** (4,240)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 및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래관계의 질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감독을 적게 하고 학대나 방임을 한다고 지각할 때 청소년은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어머니의 감독이

높을 때 외로움을 덜 경험한 반면, 어머니가 방임적일 때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감독이 불충분할 때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나 심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Baek, 1998)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아동은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선행연구들(Jung & Kim, 2006; Lee, 2007)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외에도 불만족한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Hojat, 1982),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McCombs, Forehand, & Smith, 1988)와도 유사하다. 즉, 부모가 감독을 통해 자녀에게 관심을 보일 때, 자녀는 소속감을 느끼며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으

나, 이와 달리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하거나 방임될 때 심리적 부적응과 함께 외로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학대와 어머니의 감독 및 방임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버지의 학대가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남자는 부모의 학대에 의해 여아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로 남아가 학대의 대상이 된다는 선행 연구결과(Kim, Kim, & Park, 2006)와 유사하다. 또한, 학대 받은 아동은 우울하고 위축되며 정서적 부적응을 겪는다는 연구결과(Kim & Kim, 1997)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의 감독이 남자 청소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인식한 남자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자기 가치와 낮은 고독감을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Belle & Longfellow, 1983)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위안을 주는 대상을 부모나 친구 가운데 어머니를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꼽은 연구(Marcoen & Brumagne, 1985)를 통해서도 어머니의 관심과 지지는 남자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학대 및 방임과 어머니의 방임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쳤다. 여자 청소년은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부모의 관심과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느낄 경우, 외로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관계형성과 친밀감의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부모의 방임에 의한 외로움을 보다 더 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부모와의 안정적인 유대감 속에서 관심과 지지가 부족하

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여자 청소년은 외로움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해 보면, 성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 중 감독, 학대 및 방임 요인은 청소년기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보다 중요시되면서 안전과 지지의 기반을 가족에서 또래관계로 전환하는 시기로, 주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럼에도 부모가 자녀와 대화 통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는 문제행동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연구결과(Reid & Patterson, 1989)는 부모의 감독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반영하는 감독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외로움을 덜 경험하였다. 이는 또래와의 애착이 높고, 친구에 대한 신뢰감이나 친밀감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선행 연구들(Kim, 2006; Waldrip, Malcolm, & Jensen-Campbell, 2008)과 일치한다. 또한 또래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거나 또래로부터 배척과 거부를 경험하고,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이 위축, 우울·불안 및 외로움 등의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기 쉽다는 연구결과(Kim, 2005)와도 일치한다. 이 외에도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며, 비행, 우울 등의 문제행동과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고(Kupersmidt & Coie, 1990), 외로움 및 사회적 위

측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낳는다는 연구결과들(Olweus, 1993; Yang & Doh, 1999)과도 같은 맥락이다. 즉, 외로움은 개인과의 친밀감 형성의 부족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감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Goswick & Jones, 1981), 또래관계는 외로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래관계의 질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다소 더 높긴 하였으나, 전체적인 수준은 양성 모두 매우 높았다. 이는 청소년이 또래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친밀감의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래관계의 질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친밀감이나 지지와 같은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외로움이나 우울 또는 불안과 같은 문제행동을 덜 나타낼 것이다.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상 또래관계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와 고민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또래에 대한 애정과 의존도가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한다는 관점에서도(Buhrmester, 1990),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학대, 방임과 어머니의 감독, 학대 및 방임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감독이 높은 집단일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Ahn, 2008)나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자녀의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를 지지한다. 이 외에도, 부모가 비판적, 거부적, 비일관적이며 지나친 통제를 하는 경우 자녀는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보인다는 결과(Pettit, Dodge, & Brown, 1988)와도 유사하다. 대체로 부모에 의해 학대를 받는 아동

은 다른 친구들과 놀지 않으며, 공격성이 높고, 대인관계 형성에 필요한 감정이입능력이 낮아 또래관계에서 소외되고 수동적이며 위축되어 또래관계의 질이 낮다는 연구결과(Brenner, 1984; Choi, 1989)와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라는 두 개의 사회적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경험은 또래관계를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Hartup, 1982; Parker & Ladd, 1992)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의 질에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고, 발달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청소년기에 또래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점에서,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 발전을 위해 부모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상대적 영향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가족간의 대화 단절,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및 함께 하는 시간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선행 연구결과(Shin & Kim, 2004)에서 보면, 중학생 자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자녀는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자주 접촉하고 어머니를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 인식하며, 모-자녀관계가 부-자녀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대와 어머니의 방임이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

인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양쪽 부모로부터 느끼는 방임만이 또래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일관적으로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학대적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의 질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즉,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은 아버지의 학대와 어머니의 감독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아버지 및 어머니의 방임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는 초기 성인의 애착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적 역할을 보고한 연구결과(Ditommaso et al., 2003)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외로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또래관계의 질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질이 차지하는 매개적 역할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의 질은 아버지의 학대와 외로움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여, 외로움은 아버지의 학대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보다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일 경우 또래관계의 질이 낮아지고, 나아가 이러한 또래관계에서의 불만족으로 인해 외로움이 초래되었다. 또래관계의 질은 어머니의 방임과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역시 완전 매개하여, 어머니의 방임은 남자 청소년의 외로움에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의 질은 아버지 및

어머니의 방임 요인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는데, 아버지 및 어머니의 방임은 청소년의 외로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매개효과에서의 성차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비행 청소년과의 접촉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발견된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의 간접적 영향은 여자 청소년에게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Werner & Silbereisen, 2003)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감독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과 긍정적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외로움을 덜 경험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또래관계가 강조되는 청소년기에도 청소년의 발달에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또래관계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감독, 관심 및 애정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의 측면에서 그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나 인지 능력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더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Rohner & Pettengill, 1985),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에 의해 보고되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보고자에 의한 자료수집의 장점을 고려해 볼 때, 후속 연

구에서는 부모의 평가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뿐 아니라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에서도 질문지법과 더불어 관찰법과 면접법을 포함하여, 청소년 자신 외에 담임교사와 부모 또는 또래에 의한 평가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외로움에 있어서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이를 시도해보았다는 점에서 가장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발견된 또래관계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의 영향력은 물론 이 시기에도 부모-자녀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가 어머니에 초점을 두어온 점과 달리, 본 연구는 아버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을 고려함으로써, 부-자, 부-녀, 모-자 및 모-녀 관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외로움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영향력과 더불어 성별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청소년 자녀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Ahn, S. O., & Kim, Y. H. (2005). Family system and male adolescents' lonelin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2), 165-182.
- Ahn, S. Y. (2008).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 A compositi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53(4), 500-505.
- Baek, Y. H. (1998). *A study on family influencing the juvenile delinqu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le, D., & Longfellow, C. (1983, April). *Emotional support and children's well-being : An exploratory study of children's confidan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etroit.
- Brennan, T. (1982). Loneliness at adolescence. In L.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 Wiley.
- Brenner, A. (1984). *Helping children coping with stress*. Lexington, Mass : C. Heath and Company.
- Bryant, B.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4), 1101-1111.
-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

- 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Choi, E. S. (1999). *Study of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Y. R. (1989). *A study on Aggression and Empathy in the abused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orsano, P., Majorano, M., & Champretavy, L. A. (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xperience of being alone. *Adolescence*, 41(162), 341-353.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 Culp, A. M., Clyman, M. M., & Culp, R. E. (1995). Adolescent depressed mood, reports of suicide attempts, and asking for help. *Adolescence*, 30(120), 827-837.
- Dekovic, M., Janssens, J. M. A. M., & Van As, N. M. C. (2003). Family predictors of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ce. *Family Process*, 42(2), 223-235.
- Dekovic, M., & Meeus, W. (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2), 163-176.
- Ditomaso, E., Brannen-McNulty, C., Ross, L., & Burgess, M. (2003). Attachment styles, social skills and lonelines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2), 303-312.
- Doh, H. S. (1996). Parental warmth and control and loneliness in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6), 1-11.
- Doh, H. S. (1998). The relation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victimization by peers to loneliness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2), 1-9.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 in perception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05.
- Goswick, R. A., & Jones, W. H. (1981). Loneliness, self-concept, and adjustment. *Journal of Psychology*, 107(1), 237-240.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2), 415-428.
- Hartup, W. W. (1982). Symmetries and asymmetries in children's relationships. In J. DeWit & A. L. Benton (Eds.), *Perspectives in child study : Integ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Lisse, Netherlands : Swetz & Zeitlinger.
- Hecht, D. B., Inderbitzen, H. M., & Bukowski, A. L.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2), 153-160.
- Heinrich, L. M., & Gullone, E. (2006).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loneliness : A literatur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695-718.
- Hojat, M. (1982). Loneliness as a function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 *Journal of psychology*, 112, 129-133.
- Huh, M. Y.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ones, W. H., Freemon, J. E., & Goswick, R. A. (1981). The persistence loneliness : Self and other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49(1), 27-48.
- Jung, S. H. (1998). *Study on relations of between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attitude and self-esteem*.

-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Y. I. (1988). *The study of loneliness and school achievement according to sociometric stat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Y. J., & Kim, K. W. (2006).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 and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mother and brother on children's lonelines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Counseling, 18* (1), 217-232.
- Kerns, K. A., Klepac, L., & Cole, A. K.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im, H. J. (2002). *The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mother, loneliness of childre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cli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2005). *The influences of adolescent's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Kim, H. R., & Park, S. K. (2006). The impa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maladjustment of adolescents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altreated adolescents and non-maltreat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1*, 207-232.
- Kim, J. H., & Kim, S. A. (1997). The status of child abuse and its consequences. *Studies on Korean Youth, 26*, 5-28.
- Kim, J. K. (2002). *Preadolescent communication skills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by institutionalization, sex, and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M. (2006). *Loneliness of adolescents according to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W., Jo, Y. J., & Jung, Y. J. (2005). The effects of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mother on loneliness-negative cognitive regulation's mediating rol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379-389.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5), 1350-1362.
- Ladd, G. W., & Kochenderfer, B. J. (1996). Linkages between friendship and adjustment during early school transi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332-34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J. H. (2007). *A study on children's loneliness, mother's acceptance-rejection perceived by children, peer relational skills and automatic though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im, Y. J., & Na, Y. M. (2003). The links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esteem,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 Focusing on 1st grade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5*(2), 61-69.
- Maria, C. R. (2006).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middle and late childhood : The relationship to attachment and parental styl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7*(2), 189-210.
- Marcoen, A., & Brumagne, M. (1985). Loneliness among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25-1031.
- McCombs, A., Forehand, R., & Smith, K.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roblem-solving style and adolescent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 Family Psychology*, 2(1), 57-66.
- Medora, N & Woodward, J. C. (1986). Loneliness among adolescent college students at a midwestern university. *Adolescence*, 21(82), 391-402.
- Oh, H. M. (2000). *Relation between children's loneliness and the qualities of sibling relationships and friend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Olweus, D. (1993). Bullies on the playground : The role of victimization. In C. H. Hart (Ed.), *Children on playgrounds : Research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pp. 85-128). Albany, NY, US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ark, S. Y. (1998).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Y., & Doh, H. S. (1998).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1), 229-244.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arker, J. G., & Benson, M. J. (2004). Parent-adolescent relations and adolescent functioning : Self-esteem, substance abuse,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9, 519-530.
- Parker, R. D., & Ladd, G. W. (1992).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ls of linkages*. Hillsdale, NJ : Erlbaum.
- Patterson, G. R., &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4), 1299-1307.
- Paula, L. (2001). Parent-child relationship, family structure, and loneliness among adolescents.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2(1), 20-26.
- Perlman, D., & Landolt, M. A. (1999). Examination of loneliness in children-adolescents and in adults : Two solitudes or a unified enterprise? In K. J. Rotenberg, & S. Hymel (Eds.), *Lonelines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325-347).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89-216).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id, J. B., & Patterson, G. R. (1989).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ur pattern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2), 107-119.
- Rigby, K., Slee, P., & Cunningham, R. (1999). Effects of parenting on the peer relations of Australi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9(3), 387-388.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2), 524-528.
- Rubenstein, C. M., & Shaver, P. (1982).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06-223). New York : Wiley-Interscience.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Russell, D., Peplau, L. A., & Ferguson, M. L.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 Personality Assessment*, 42, 290-294.
- Shaver, P., & Rubenstein, C. (1980). Childhood attachment experience and adult loneliness.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pp.42-73).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Shin, H. S., & Kim, K. H. (2004).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7(2), 47-58.
- Statistics Korea (2010). *2010 Adolescents' Statistics*. Seoul : Statistics Korea.
- Tauschke, E., Merskey, H., & Helmes, E. (1990). A systematic inquiry into recollections of childhood experi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adult defence mechanism.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7, 656-660.
- Uruk, A. C., & Demir, A. (2003). The role of peers and families in predicting the loneliness level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137(2), 179-193.
- Waldrip, A, M., Malcolm, K. T., & Jensen-Campbell, L. A. (2008). With a little help from your friend : The importance of high-quality friendships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7(4), 832-852.
- Werner, N. E., & Silbereisen, R. K. (2003).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nd contact with deviant peer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5), 454-480.
- Woo, M. J., & Park, I. J. (2001). Child bonding type in early stages, family functioning, and children's lonelines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6(2), 25-43.
- Woodward, L. J., & Fergusson, D. M. (1999). Childhood peer relationship problem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1), 87-104.
- Yang, W. K., & Doh, H. S. (1999). Relationships between peer acceptance, peer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 223-238.
- Young, J. E. (1982). Loneliness, depression and cognitive therapy : Theory and application.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379-406). New York : Wiley.
- Yu, Y. S. (1995).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cognitive style and emotional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Gun, Korea.

2011년 10월 28일 투고, 2012년 2월 8일 수정
2012년 2월 10일 채택